

“새로운 삶은  
반드시 옵니다.”



임경식, '결실'

사랑의열매 

2023  
09

# 사랑의열매는 투명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약 3만 개 협력 기관들을 지원하며, 자체 모니터링, 정부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플랫폼입니다.

기부금의 **94%**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2022년 지원금액  
**7,334**억

2022년 모금금액  
**7,925**억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 모금액은 다음해에 지원됩니다



홈페이지 가기

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 1,578억	노인 954억	장애인 469억	여성 / 다문화 343억	위기가정 1,852억	지역사회 2,035억	해외 / 북한 103억	
사업분야	기초생계 3,857억	교육 / 지원 915억	주거 / 환경 735억	보건 / 의료 528억	심리 / 정서 285억	사회적 돌봄 강화 659억	소통 / 참여 확대 210억	문화복지 해소 145억

[해당 지원내역은 2022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록입니다. 지난해 7,334억 원으로 전국 약 3만 개의 협력 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 소창 손수건 독자 체험 후기 제로 웨이스트 제품 직접 사용해봤어요!

도시락 싸서 소풍도 가고, 장바구니 손잡이에 묶으면 패션 아이템으로도 어울립니다. 선물 포장으로도 반응이 좋았고요. 딱 한 번 닦아도 괜히 폼 나는 것 같았어요.  
-제주시 이성수님



휴지나 물티슈를 자주 사용해온 탓에 처음엔 손수건에 적응하는 게 어려웠어요. 가방에 들어 있던 휴대용 물티슈를 빼고 방수 파우치에 손수건을 넣어 다니면서 물티슈 대신 사용했어요. 특히 이번 여름휴가 때 아주 유용했는데, 물에 적셔서 열이 오를 부위에 돌려매고 있거나, 얼룩을 닦은 후 빨면 재사용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방수 파우치랑 손수건 조합이면 물티슈 사용을 줄일 수 있겠어요.  
-대전시 김선미님



체험을 시작하고 며칠 지나면 손수건 사용하는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집 곳곳에 손수건을 하나씩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니 너무 시원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키즈 카페에 갈 때도 물티슈 대신 부드러운 손수건을 여러 개 가져갔습니다. 손수건을 사용하는 일주일 동안 일회용 물티슈와 휴지 사용을 줄일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하이엔(HAIYEN)님



### 자연에서 온 천연 세제 '소프트'를 보내드립니다

- 매월 20일까지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mailto:cckpr@chest.or.kr)로 제로 웨이스트 제품 체험을 신청한다.
- 메일을 보낼 때 이름과 연락처, 받을 주소를 적는다. (총 3명 선정)
- 일주일 동안 제품을 사용한 후 간단한 후기를 적어 인증 사진과 함께 사랑의열매에 이메일로 보낸다. (후기는 다음 달 '그린 열매 플러스'에 게재할 예정)



**04 표지 이야기**  
 붓으로 유명한  
 구필 화가 임경식 작가

**06 나눔 여행**  
 가을을 즐기는 도심 속  
 숲속 도서관

**10 매술랭**  
 100년 전통 4代 명가의 비빔밥  
 함양집 본점 윤희 대표

**14 그린 열매**  
 자연에서 온 천연 세제 '소프넛'

**16 모두의 나눔**  
 이웃의 삶을 지키는  
 나눔이라는 선물

**22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결식아동에게 급식 지원하는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26 내 인생의 한마디**  
 구독자 20만 명 달성 기념해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한  
 (주)밸런스에셋 이정윤 대표

**30 소중한 진심**  
 대구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오영석 팀장

**32 나눔 이슈**  
 21번째 황기순·박상민의  
 '사랑더하기' 거리 모금

**34 나눔 소식**  
 호우 피해 특별 모금 및  
 봉사 활동 전개



**36 열매 소식**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성료

**37 크라우드펀딩**  
 이주 배경 아동들의 태권도 교육 지원

**38 착한기업**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종합 건설 기업  
 (주)포스코이앤씨

**42 다른 그림 찾기**

**43 전국 열매 이야기**  
 광주·전북·전남·대전·충북·충남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8 전국 지회 뉴스**

**68 나눔 만화**

이달의 표지



○ 임경식, '결실'  
 53.0×40.9cm  
 oil on canvas

## 사랑의열매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발행인 김병준

발행일 2023년 9월 / 통권 197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증,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빛으로 유영하는  
구필 화가 임경식 작가

### 잘한다 잘한다 내 아들

갑작스러운 오토바이 사고로 열아홉 청년이 서른세 살이 되기까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다. 애먼 가족들을 원망하며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운동을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대기업 광고에 출연할 정도로 잘나가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상상이 가지 않는 과거다. <사랑의열매> 9월호 표지의 주인공 임경식 작가다.

“제게 재능이란 절박함이었어요. 살아 있다면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어느 날 문득 다른 장애인 친구들을 보니 그림을 그려 전시도 하고, 게임으로 용돈도 벌고... 다들 무엇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10년 넘게 허송세월만 보낸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임경식 작가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붓을 입에 물었다고 말했다.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한 그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어머니였다.

“처음 그림 그린다고 연필을 입에 물고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줄 몇 개 긁는 거였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잘한다,

## “달혀 있던 제 마음을 연 건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느릿하게 흘러가는 삶이지만, 결코 멈춘 적은 없다. 살아내는 것으로 맞섰으며, 붓을 물고 싸웠다. 그래서 그의 그림엔 힘이 있다.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잘한다 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응원해주셨어요. 제가 다치기 4년 전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하셨는데도 제 옆을 지키며 늘 기도밖에 해줄 게 없다며 미안해하셨죠.”

임경식 작가는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그린 ‘천국 가는 길’이란 작품을 가장 아낀다. 구매 문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을 정도다.

### 위로하는 그림 되길

임경식 작가는 풍경화와 금붕어를 소재로 그린 시리즈로 유명하다. <사랑의열매> 표지는 풍경화 시리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가을의 청명한 하늘과 나뭇가지가 훑 정도로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들로 풍요로운 결실이 잘 표현되어 있다. 커켜이 쌓은 작가의 색깔은 그림 속 사과만큼이나 무르익었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가슴 한쪽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

“한 달 전인가 <사랑의열매> 표지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제 그림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가입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세계구족화가협회 회원이기도 한 임경식 작가는 수많은 전시와 수상 경력이 있는 중견 작가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붓을 입에 문다. 하루라도 쉬면 금세 감이 떨어진다며 자신을 채찍질한다.

“13년간 달렸던 제 마음의 문이 그림으로 열린 것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모든 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작품을 그리고 싶습니다.”

아픔을 겪었기에 아픔을 이해하는 임경식 작가의 마음이 따뜻하게 다가온다. 🍀

### 작가 주요 profile

- 2023 제2회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시
- 2021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우수상
- 2019 LG유플러스 구축화가 특별전
- 2012 대한민국 환경미술대전 입상
- 현 세계구족화가협회 서울음악아트센터 이사



공간 재활용은 덤!

## 가을을 즐기는 도심 속 숲속 도서관

서울 각 자치구는 산속에 위치한 낡은 상하수도 시설이나 화장실 건물 등을 철거해 숲속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은 물론 도심 속 힐링 공간 확충으로 큰 관심을 끌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글강은진 사진 각도서관, 한국관광공사



### 아차산 숲속도서관

지난 2022년 8월에 개관한 그야말로 '신상' 도서관이다. 그 중심에는 도서관 메인 공간인 1층 열람실이 있다. 8.3m에 이르는 시원한 층고에 중앙에 놓인 긴 탁자가 공간을 가로지르며 특유의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흡사 세련된 북 카페 같다. 원래 쓰레기 집하장이던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아차산 숲속도서관은 아차산 어울림공원 중심에 위치한 만큼 주변 풍경을 도서관 안으로 한껏 끌어왔다. 건물 한쪽 면을 전면 유리창으로 만들어 아차산 어울림공원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면서 사계절을 뚜렷이 즐길 수 있다.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책장이 가리지 않으며, 책상은 정원과 마주 바라보고 있다. 꼭 책을 읽지 않더라도 창밖 풍경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도서관이다. 심터를 자처한 숲속도서관의 백미는 2층 테라스다. '조용히, 엄숙' 따위의 글귀는 보이지 않는다. 설계 자체를 사람들이 대화하며 쓸 수 있도록 했다. 숲속 한가운데서 가을이 오가는 것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60석 규모의 크지 않은 도서관이지만, 개관 초 인증샷 명소로 입소문 타면서 지금은 가장 잘나가는 핫플레이스 중 하나다.

📍 서울시 광진구 위커히로 127



## 청운문학도서관

인왕산은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을 둘러싼 4개 산 중 하나로, 조선의 대표적 화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아름다운 산이다. 그 인왕산 자락에 아주 고풍스러운 한옥 한 채가 깃들여 있으니, 바로 청운문학도서관이다. 송례문 복원에 사용한 지붕 기와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수제 기와를 사용하고,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한 한옥 기와 3,000여 장을 재사용한 의미 있는 건축물이자 종로구 최초의 한옥 공공 도서관이다. 인왕산의 경사 지형과 자연경관을 고려해 지하층과 지상층 총 2개 층으로 이뤄져 있다. 열람실 역할을 하는 지상 한옥의 대청마루나 누마루, 툇마루 등에 앉아 남쪽으로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보면 한옥의 안마당과 인왕산 자락의 푸른 숲, 저 멀리 도심의 빌딩 숲이 한눈에 담겨 잠시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 그만이다. 마당 연못 위에 지은 정자에서 인공 폭포의 청명한 물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이름처럼 시·소설·수필 위주의 문학 특성화 도서관으로, 인근에 운동주문화관과 시인의 언덕 등이 있어 가을 문학 산책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36길 40



## 성동구립 숲속도서관

마치 숲속에 숨어 있는 나만의 이자이트 같은 도서관이다. 매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성동구립 숲속도서관은 공원 내 아름다운 수목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건립했다. 내부는 자작나무를 사용한 친환경 인테리어로, 숲을 향해 난 환한 통유리창과 야외 테라스까지 갖춰 숲속에서 여유롭게 독서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꾸몄다. 특히 곳곳에 난 창문들이 숲속 녹음과 채광을 실내까지 잘 스며들게 해 따뜻한 느낌을 자아낸다. 책을 읽다가도 문득 창밖 숲속 경치에 매료돼 한참을 바라보게 된다. 도서관 바로 옆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서울시 우수 조망 명소로 선정된 '명상의 숲'이 나온다. 이곳 팔각정에서 바라보는 서울 풍경은 그야말로 야경까지 장관이다.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숲은 물론 대모산과 멀리 청계산까지 보이는 전경은 그림이 따로 없다.

📍 서울시 성동구 매봉길 49-2



## 배봉산 숲속도서관

작가의 숲속 서재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동대문구 배봉산둘레길 입구에 자리한 배봉산 숲속도서관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한옥 구조를 차용해 천장을 높였고, 서까래를 연상시키는 나무 골격이 눈에 보이도록 했다. 설계 당시부터 배봉산 자락과 어우러지도록 나무 한 그루 훼손하지 않았으며, 벽면마다 크게 창을 내 산속에서 책을 읽는 느낌이 들도록 했다. 서가에서 눈만 돌리면 푸른 나무와 숲길이 한눈에 들어온다. 도서관 내부에 설치된 큰 유리창을 통해 울창한 나무들이 펼쳐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 배봉산둘레길은 데크로 연결된 무장애 숲길이다. 데크를 따라 둘레길을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으며,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해 산에 오를 수도 있으니 가벼운 산책을 하기 좋다. 🍀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6길 97



# “세대를 잇는 비빔밥으로 함양집의 자부심을 지켜갑니다”

함양집은 한 세기를 버텨온 비빔밥 명가로 4대째 이어가고 있다. 지역 문화유산으로 꼽힐 만큼 울산의 명소로 이름난 곳이다. 함양집의 비빔밥 한 그릇에는 세기를 뛰어넘는 맛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글 강보라 사진 서범세



울산시청 건너편 골목에 위치한 함양집은 육회비빔밥 전문점이다. 1924년에 문을 열어 100년의 업력을 자랑하는 울산의 대표적 노포다. 상호는 창업주의 고향인 경남 함양에서 따온 것으로, 진주의 옛 비빔밥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함양집은 1대 강분남, 2대 안숙희, 3대 황화선, 4대 윤희 대표로 ‘창업주-딸-며느리-딸’이 가업을 잇고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한 집안의 생업이 3대 이상 유지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이런 전통의 계승은 가업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자부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사 출신인 4대 윤희 대표는 “함양집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4대의 자리를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 변치않는 맛은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함양집의 메인 메뉴인 육회비빔밥은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식재료는 여느 비빔밥과 마찬가지로 양소 한우에 시금치, 숙주나물, 고사리, 미나리 등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평범함 속에서 최고 맛을 이끌어내는 것이 함양집만의 비결이다.

“나물은 가장 연한 속살만 데치고, 콩나물도 가운데 줄기 부분만 손질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재료 준비만으로도 손이 무척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손맛이 비결”이라는 말은 함양집에 그대로 적용된다. 맛의 기본이 되는 쌀은 안강미를 사용하는데, 일일이 손으로 치대서 찰기를 없앤 뒤 재료와 어우러지도록 한다. 고추장을 담그는 것은 물론 고명으로 올리는 김까지 주방에서 직접 구울 정도다. 공산품을 찾아볼 수 없는 100% 핸드메이드

100년 전통 4대 명가의 비빔밥  
함양집 본점 윤희 대표



윤희 대표가 꼽은 맛의 비결은 ‘손님’이다. 찾아주는 손님 덕에 신선한 식재료를 최상의 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비빔밥인 셈이다. 지름길은 고사하고 중간에 건너뛰는 과정도 없다. 때로는 쉬운 길을 마다하고 에둘러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작업이 지금까지 가능한 이유는 윤희 대표가 가업을 잇는 후계자이기 때문이다. 사업적 마인드보다 함양집의 맛을 이을 계승자 입장으로 접근하기에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었다.

창업자인 강분남 여사는 “칼끝(깨끗하고 정확하게)하라”는 말을 가훈으로 삼을 정도로 음식 만들기의 기본을 중요하게 강조했다. 4대인 윤희 대표는 맛을 유지하는 또 다른 비결로 ‘손님’을 꼽는다.

“아침에 준비한 식재료는 모두 당일 소비하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신선하려면 회전율이 높아야 하는데, 이걸 완성해주는 게 손님들이죠. 그래서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 백년 명가(百年名家)를 만드는 함양집 단골들

윤희 대표는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생활하던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가게 일을 돕긴 했지만, 함양집의 후계자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가르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어머니인 3대 황화선 여사의 부름을 받았다.

“고민이 깊었죠. 앞에서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교사는 제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지만, 가업을 이을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지금은 그때 결정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업을 잇는다는 사명은 함양집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윤희 대표는 오랜 단골들의 조언과

1 함양집의 대표 메뉴인 육회 비빔밥에 시원한 목재와 한우물회를 곁들이면 완벽한 한 상이 된다.  
2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함양집의 윤희 대표가 열매둥이와 함께한 모습



3 함양집은 울산시에서 선정한 맛집으로, 지역의 명물이며 자랑으로 꼽힌다.  
4 식당 한쪽에는 100년 전통을 인증하듯 1대부터 4대 주인의 사진이 걸려 있다.

응원에도 큰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30년 단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40대도 많습니다. 할아버지 손잡고 왔던 손주들이 어른이 돼서도 찾아주시는 거죠. 3대가 함께 방문하고, 세대를 이어서 찾아주는 영광은 100년을 이어온 함양집만의 특권이 아닐까요?”

윤희 대표는 단골들의 질책도 자양분으로 마음 깊이 새긴다. 손님들의 지적과 질책이 애정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단골분들은 오랜 세월 드셔서 작은 차이도 금방 알아차리시거든요. 석식불고기 맛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서 먹어보니 미묘하게 간이 부족하더군요. 알고 보니 새로 들어온 직원이 불고기 양념을 두 국자 대신 한 국자 반을 넣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방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안팎으로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곤 한다.

“맛이 달라졌다고 느꼈을 때 그 식당에 발을 끊으면 그만이지요.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인데, 주인을 불러서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애정이 깊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손님들의 지적도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진답니다.”

### 후대에 꽃피운 선대의 나눔 유산

흔히 좋은 음식을 배부리 먹이는 것은 덕을 쌓는 일이라고 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함양집이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식당이 된 것도 좋은 음식을 나누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2대 안숙희 여사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격으로 6·25전쟁 당시 상이군인과 피란민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어려운 이들을 보살폈다. 후한 인심에 가게 앞은 문전성시를 이뤘고, 전쟁의 난리 통에도 함양집을 보호하는 사람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가게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요즘은 무료 급식소도 있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어서 사라진 풍경이 됐지만, 예전에는 배고파서 밥 달라고 오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챙기고 먹이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보며 저 역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학생들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손님들이 오시면 양을 좀 더 넉넉하게 내곤 하죠.”

울산 착한가게 6호점 가입도 우연이 아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으로 이웃을 돕는 시대가 되었다는 깨달음 때문이다.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착한가게에 가입한 것이다. 선대의 나눔 정신은 유기그릇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며 후대로 내려오고 있다.

윤희 대표는 어려운 고비마다 함양집의 정신을 되새긴다고 말한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함양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집하는 것이다. 100년의 시간이 축적된 맛과 나눔을 이어가는 윤희 대표는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음식을 먹기 전의 설렘과 먹고 난 뒤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맛집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돈보다 사람을 남기는 전통을 후대에도 그대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최고의 비빔밥 명가는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웃사랑을 듬뿍 담은 함양집은 앞으로 도 변치 않는 맛을 약속한다. 🍷

흔들어 사용하는 비누 열매

## 자연에서 온 천연 세제 '소프넛'

최근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이 많은 이들을 중심으로 소프넛이 큰 인기다. 겉보기엔 평범한 열매처럼 보이지만, 설거지와 세탁 등 다양한 곳에 합성세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낯설고 신기한 소프넛을 집중 탐구해봤다.

글 이선희 참고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국립생물자원관, 프레시버블

### 천연 계면활성제 성분이 풍부

소프넛은 비누를 뜻하는 쉘(soap)과 열매를 뜻하는 너트(nut)를 결합한 이름이다. 영어로 비누 열매 나무(soapberry tree)라고 부르는 무환자나무의 열매다. 무환자나무 열매가 천연 세제로 주목받은 이유는 껍질에 천연 계면활성제인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 물과 만나면 사포닌 성분이 녹아 나와 세탁 세제, 주방 세제, 청소 세제 등을 대신해 쓸 수 있다. 소프넛은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며, 다 쓴 후에는 퇴비로 활용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자연 분해돼 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



### 기자들의 생생 체험기



#### 세탁 세제로 사용해보니

**사용법 ①** 작은 세탁망에 소프넛 열매를 넣은 후 세탁물과 함께 세탁기를 작동한다. (세탁물 1kg당 소프넛 1~3개 사용) **②** 세탁이 완료되면 소프넛을 꺼내 건조시킨다. (소프넛은 세탁 5~8회 재사용 가능)

○ **K 기자** 사용하기도 간편한데 세탁 효과도 좋았다. 심한 찌든 때가 아니라면 기존 사용하던 세탁 세제 제품과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 특히 섬유 유연 기능도 있어 정전기도 충분히 방지되고 옷도 부드러웠다. 이번 기회에 세탁 세제는 소프넛으로 완전히 갈아탈 계획!

○ **B 기자** 갓난아기나 아이가 있는 집에는 추천. 하지만 세정력이 아쉽게 느껴졌다. 소프넛을 끓여 진하게 추출해 사용하면 세정력이 좀 나아지는 듯한데,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 세탁 세제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 주방 세제로 사용해보니

**사용법 ①** 거품망에 소프넛 열매를 가득 채워 넣고 뜨거운 물로 적셔가며 설거지 볼에 물을 받는다. 물을 적당량 받으면 거품망을 담가 흔들어 소프넛 거품 액상을 만든다. 거품망이 없다면 작은 볼이나 컵에 소프넛 7~8개를 넣고 흔들어 거품을 만든다. **②** 이렇게 만든 거품을 솔이나 수세미에 묻혀 주방 세제 대신 사용한다.

○ **K 기자** 뜨거운 물에 거품을 만드는 게 번거웠으나 생각보다 거품이 잘 나서 신기했다. 웅기나 무쇠솥 등 일반 주방 세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그릇을 닦을 때 제격이다.

○ **B 기자** 애벌 설거지 세제의 훌륭한 대안! 식기세척기에 넣기 전, 애벌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세제를 이중으로 사용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일반 주방 세제에 비해 세정력이 약하게 느껴져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그다지 내키지 않는다. 하지만 애벌 세제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 청소 세제로 사용해보니

**사용법** 병에 물과 소프넛 열매를 적당량 넣고 흔들어 거품을 만든 후 사용한다.

○ **K 기자** 일반 청소 세제에 비해 순한 느낌이라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심리적 만족을 얻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세척력이 좋아 사람 손이나 피부가 닿는 부분을 청소할 때 좋다. 아토피, 환기 문제 등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 좋은 대안이 될 듯.

○ **B 기자** 간단한 욕실 청소에 안심맞춤이다. 피부에 닿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순해 매일 손이 닿는 수전이나 세면대 등에 사용하기 좋다. 데일리 세제로 good!

# 이웃의 삶을 지키는 나눔이라는 선물

사랑의열매가 모금한 기부금은 8대 배분 분야에 전달한다. 그중 기초 생계 지원은 전체 배분의 50.2%(2021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아직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건디는 이웃이 많음을 의미한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이웃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글 이선희 사진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 미세스온그림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지원 사업 <희망채우기>



1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소그룹 활동 모습 2 전통 공예 자개 그림책을 만들며 심리와 정서를 안정시키는 소그룹 활동



북한이탈주민 중 1%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해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하는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이다. 정착 지원 제도에서 제외돼 연고도 없는 남한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또한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라 할지라도 하나재단의 인력만으로 이들을 모두 보살피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북한이탈주민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상당수는 정착 과정의 스트레스,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심리·정서적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 MINI INTERVIEW



(사)북한인권정보센터 김승혜 사회복지사

Q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하나재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지원했음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문제 해결이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협력 기관과 연계해 대상자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도록 합니다.

Q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삶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불씨를 전하고 있기에 '희망의 햇불'이라고 생각합니다.

## 4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설·추석맞이 물품 지원 사업



대한적십자사는 삼성의 후원과 사랑의 열매 지원으로 2010년부터 명절마다 취약 계층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32,922가구와 지역사회 복지시설 1,300개소(10,900개)에 총 43,822개 물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대 취약 계층으로 아동·청소년(손주·자녀를 조부모, 한부모가 부양하거나 미성년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 노부부 가구 등), 이주민, 기타 위기 가정(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적 위기 가구)이다. 지역 특산품을 구성한 건강에 이로운 식재료를 제공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한다. 또 결연한 적십자봉사회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대상자의 정서 지원과 보건 서비스(건강 체크)도 함께 이루어진다.

1, 2 적십자봉사회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는 모습



명절맞이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포장 중인 적십자봉사회원들

### MINI INTERVIEW



#### 대한적십자사 황가희 대리

- Q 1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룬 사업 성과를 꼽는다면요? 설·추석맞이 물품 전달은 적십자사의 대표적 명절 봉사 활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외부와 단절되어 외로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변함없이 지원의 손길을 내밀며 삼성, 적십자사 및 봉사회원이 함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 Q 물품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쓰나요? 대상자분들이 선호하는 게 무엇일까를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최대한 수요가 많은 물품을 지원하려고 하지요. 품목을 선정하기 전 직원·봉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이전 지원 품목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지원 품목에 대한 선호를 파악해 품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Q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연 2회 설·추석을 맞아 전국 대상자에게 “고유 명절에는 삼성이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사업 기간 내 물품이 원활히 전달되도록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명절의 풍요로움과 주변 이웃들의 따스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 Q 기존 사업과 차별화를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적십자사에는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의 봉사회원이 있고, 그중 대상자와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결연 봉사회원 수는 1만 5,000여 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일회성 물품 지원으로 그치는 것과 달리 대상자와 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재가방문을 통해 기초 생활 물품 지원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기가정재기지원사업

어느 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가정이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닥뜨렸다면, 이를 극복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은 신한금융그룹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2018년부터 위기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주거비, 교육양육비, 의료비, 재해재난구호비 등을 전달하며 위급성과 필요성 및 재기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1차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가정의 재기 가능성을 고려해 2차 지원도 진행한다. 또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매달 '희망영웅'을 선정해 포상금도 전달한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헌신하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지며, 지난해 총 19명의 희망영웅이 탄생했다.



1 울산 내 위기가정에게 지원금을 전달한 울산중구가족센터 2 위기 가정에 주거비를 지원해 가정의 재기를 도왔다.



위기 가정에 전달한 후원 물품

### MINI INTERVIEW



박수진 간사



김향지 대리



김문영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박수진 간사, 김향지 대리, 김문영

Q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사업 성과를 꼽자면 무엇인가요? 2018년부터 5년간 위기 가정 재기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 사업 효과성 평가 등의 업무를 통해 사업 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5년간 4,793가정, 1만 4,750명(2023년 4월 기준)의 대상자를 지원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대상자 가정에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가정이 지원을 통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실질적 재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 대상자가 있다면요? 가스 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피해 규모가 컸기에 내부 회의를 통해 1차재해재난구호비를 지원한 이후 또 한번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상 이후 병원에서 현실적 고민부터 떠올리셨다는 대상자의 말씀을 통해 위기 상황이 한 가정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 환경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는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어둠 속 희망의 끈과 같았다"던 대상자의 말을 통해 사업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신한금융그룹과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느 대상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한금융그룹과 사랑의열매 지원은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대상자가 자신감을 되찾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은 단순한 위기 극복 지원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기에 대상자는 물론 저희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의 결식 우려 아동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한 급식 지원 사업

## “행복으로 배부른 도시락을 아시나요?”

평동! 오늘도 행복도시락은 아이들을 향해 달려간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도시락은 신기하게도 마음까지 배부르게 한다. 글강은진사전이승재



위생 설비를 갖춘  
행복도시락 청주센터  
(주)행복담은네모  
조리실

### 맛과 영양, 정성까지 가득 담아

지난 8월, 강력한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모두가 숨죽이고 있던 때였다. 잔뜩 흐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장대비가 쏟아질 듯했다. 하지만 태풍 예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부터 분주한 곳이 있었다. 바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청주센터 (주)행복담은네모였다. 방학을 맞아 학교급식이 중단돼 하루 두 끼조차 온전히 챙겨 먹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 분주히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다. 최신식 위생 설비가 완비된 주방에서는 조리사들이 능숙한 솜씨로 고기와 채소 등 여러 재료를 굽고, 데치고, 끓이느라 여념이 없었다. 도시락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쩐지 마음이 더 급해진다고 한다. 조리한 음식을 도시락에 옮겨 담을 때 센터 직원들의 진심이 더욱 느껴졌다. 뚜껑을 닫기 힘들 정도로 음식을 꼭꼭 눌러 담았는데, 혹여 양이 부족해 아쉽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실제 행복도시락은 반찬이나

간식뿐 아니라 성장기 아이의 필수영양소인 단백질원의 주찬이 부족하지 않도록 양을 넉넉히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리부터 포장, 배송에 이르기까지 행복도시락 청주센터 전 직원은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도시락을 준비했다. 아침 9시, 행복도시락 실은 배송 차량들이 아이들을 향해 출발했다.

### 결식의 사각지대를 찾아라!

SK이노베이션과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결식 우려 아동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한 급식 지원 사업'(이하 급식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30만 명 이상의 아이가 지자체로부터 급식을 지원받고 있지만 학교에 가지 않는 휴일과 방학 때는 가정 형편이나 돌봄 부재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음식은 한 끼에 불과해 성장기 아동의 영양을 채우기엔 부족했다. 그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기업이 위치하는 울산, 인천 서구, 충북 증평, 충남 서산, 대전 등 5개 지역을 선정해 급식을 지원한다.

조리부터 포장, 배송까지 철저한 위생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행복도시락



행복도시락은 단순히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성장기 아이의 영양 개선은 물론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게 하고,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영양 간식 하나를 제공해도 사전 간식 육구 조사를 통해 아이들의 취향을 반영한다. 이는

아이들로 하여금 행복도시락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주요 요소가 된다. 2021년 SK이노베이션 결식 우려 아동 지원 사업의 울산시 만족도 결과 분석 보고를 보면 맛과 메뉴, 양과 식생활 교육 효과성까지 5점 만점에 4.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SK이노베이션과 사랑의열매의 급식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모두 659명의 아이에게 3만 8,724식을 제공했다. 학기 중에는 석식, 방학 중에는 중·석식, 주말 결식아동은 주말식을 지원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두 끼를 지켜나갔다. 행복도시락은 앞으로 하루 두 끼조차 위협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맛과 영양, 행복까지 꼭꼭 눌러 담은 도시락이 아이들을 향해 오늘도 출발한다. 🍷

아동권리보장원 조사에 따르면 아동 10명 중 4명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아이들끼리만 있는 경우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아동 중 30% 이상이 5시간 넘게 혼자 지내며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게다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외식 물가를 고려했을 때 양질의 식사가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SK이노베이션과 사랑의열매는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잡고 결식 위기에 놓인 아이들이 넉넉하고 건강한 두 끼를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나섰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 이웃에게 행복도시락을 전달하고, 식자재 공동 구매, 연구 개발, 교육, 후원 사업 등을 진행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 사업장이 위치한 울산, 인천 서구, 충북 증평, 충남 서산, 대전 등 다섯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도시락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건강한 두 끼로 자라는 아이들

선정 기준은 명확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결식 사유가 명확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 지자체 지원은 받고 있으나 주말은 지원 받지 못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아동 등이다. 대부분 다문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경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아동들이다.

건강한 두 끼를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 행복도시락. 성장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고루 갖춘 식단으로 구성한다.



## SPECIAL INTERVIEW

### Q&A로 알아보는 행복도시락 일문일답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김도영 매니저

**올해부터 '행복 두 끼' 챌린지를 시작했다.**

작년까지는 방학 기간 2~3개월 동안 도시락을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이들의 식사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도시락 지원 후, 후원금 형태로 10개월간 추가 지원을 한다.

**행복도시락에서 아이들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궁금하다.**

각 센터의 영양사님들이 아이들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메뉴를 잘 선정해주신다. 특히 성장기 필수영양소인 단백질원의 주찬은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한 양을 준비한다. 가끔 삼계탕이나 스파게티 등 특식 밀키트도 제공해 가족과 함께 특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수행 기관들이 HACCP 위생 시설을 갖추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무엇보다 한 명이라도 끼니 공백이 생기지 않고 더 많은 아이가 도시락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고마운 점이다. 보다 많은 지원은 보다 많은 아이를 배부르게 만든다.

**행복도시락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듣고 싶다.**

급식 정책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결식 우려 아동의 식생활 환경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지속적 협력을 통해 지금도 소외된 아이들이 급식 정책에 편입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행복도시락은 계속되어야 한다.



구독자 20만 명 달성 기념해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한  
(주)밸런스에셋 이정운 대표

## “이제 나눔에 투자합니다”

거창하거나 무모한 꿈을 꾸 적이 없다. 그저 ‘오늘,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차가운 이성으로 뜨거운 마음에 투자하는 이정운 대표다.

글강은진 사진김기남, 사랑의열매

### 따뜻한 나눔의 수익률

(주)밸런스에셋 이정운 대표는 직함이 많다. 종합 금융 컨설팅 기업 (주)밸런스에셋을 중심으로 밸런스투자아카데미 대표, 밸런스텍스 컨설팅그룹 대표에 세무법인 창조 대표 세무사, 유튜브 ‘슈퍼개미 이세무사TV’ 유튜버 등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바로 기부자다. 이정운 대표는 지난 5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고액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서울에서 탄생한 유튜버 아너 1호였다. 이정운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20만 명 달성을 보다 뜻깊게 기념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한 것. 여기까지는 흔히 접할 수 있는 훈훈한 전개다. 그러나 이정운 대표에게 아너 가입이 생애 첫 기부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너 가입은 제게 5학기 다니면 주는 석사 학위 같은 거였어요. 1억 원 내면 아너 팻말 하나 받는 거죠.

와, 되게 비싼 팻말이다(웃음) 그 정도로 기부 문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입하고 나니... 예상하지 못한 뿌듯함이 밀려오더군요.” 이정운 대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뿌듯한 감정만이 아니었다.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좋은 일 했다”, “큰일 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결정했나” 등등 존경과 응원의 반응이 주변에서 쏟아졌다. 이정운 대표는 생애를 통틀어 1억 원으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웬지 계속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뿌듯함은 증폭돼갔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자로 명성이 자자한 이정운 대표지만, 이런 따뜻한 수익률은 처음이었다.

### 남다른 투자자의 선한 영향력

이정운 대표는 일찌감치 20만 구독자 달성 시 기부를 계획하고 있었기에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독자가 19만 명이 되었을 때... 곧 20만 명이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 2,000명 정도 남았을 땐 구독자님들께 빨리 친구에게 소개해달라고 채근하기까지 했어요.(웃음) 그렇게 20만 명을 달성하니 정말 너무 고마우면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갚아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이정운 대표가 아너 소사이터티 명예의전당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다.

아너 소사이터티를 알게 된 경위도 흥미로웠다. 기부에 대해 잘 몰랐던 그는 투자 경험을 십분 살려 정보 검색에 들어갔고,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랑의열매'를 선택했다. 그의 대표 저서 중 <성장주에 투자하라>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지 말고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사라"는 문구가 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세운 룰 중 하나가 집단 지성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주식, 많은 사람이 보는 영화... 그리고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은 좋은 회사거든요." 이정운 대표의 나눔은 자신의 기부로 끝나지

않았다. 사랑의열매와 함께 약 3주간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진행한 것. 이를 통해 그는 채널 구독자 418명이 나눔에 동참하도록 독려했으며, 그중 62명이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정운 대표의 나눔 이벤트로 모인 성금은 88,888,888원에 달한다. 8은 이정운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 여기, 지금, 우리

"저는 여러 영리기업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무료로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

“목표는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하게 세우세요. 왕년일랑은 지워버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성공이 어느새 가까이 와 있을 거예요.”

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절대 제 회사나 교육기관 등을 홍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눔이라고 하니... 당당히 채근하게 되더라고요.(웃음) 3주간 방송에서 계속 말했어요. '100만 원 기부하시면 전달식에도 오실 수 있고, 저랑 같이 짜장면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요."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정운 대표는 사실 대학 시절 주식 투자로 '3년 만에 100억 원'을 번 전설로 더 유명하다. 군대에서 모은 10만 원이 그의 종잣돈이었다. 이후 세무사 자격증을 따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면서 진정한 투자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키움증권 실전투자대

이정운 대표의 유튜브채널 <슈퍼개미 이세무사TV>에는 30만 구독자 달성 기념 기부 공약 영상이 업로드 돼 있다.



회에서 4년 연속 수상했으며, 2017년 장기 투자자의 꿈이라 할 수 있는 5% 지분 공시를 통해 '슈퍼개미'로 이름을 알린 자타 공인 대한민국 최고 주식 투자자다. 또 코로나19라는 위기에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세무사TV'를 열어 21만 명의 구독자와 매일 만나고 있다.

"어려서부터 제 꿈은 부자였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가게에 딸린 방 한 칸에서 산 적도 있어요. 밥을 굶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흔한 태권도 학원 한 번 다녀본 적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 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몰랐지만 막연하게 부자가 부럽고, 돈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있어야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고 연결 지은 거죠."

이정운 대표는 자신이 거둔 성공 뒤의 노력을 보라고 말한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기까지 숭한 노력을 하듯, 자신 역시 100억 원이라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 오랫동안 공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막연하고 황당한 생각을 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는 목표를 되게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할 정도로 잡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지금, 우리'예요. 당장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자고요!" 이정운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는 '기부를 계속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고정돼 있다. 30만 구독자를 기념하는 그의 다음 나눔이 약속된 영상이다. 전설의 투자자가 이어가는 전설의 나눔은 어떤 것일까?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어 구독을 눌러본다. 🍀

# “장애인도 나눌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어요”

지난 4월 19일 대구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 오영석 팀장이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대구 사랑의열매 100호 주인공이 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구 1호 농인 나눔리더가 탄생했다는 점도 의미 깊다. 글 이선희 사진 김기남, 사랑의열매

## 나눔리더에 가입하기까지

오영석 팀장은 세 살 때 열병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가 생겼지만, 그는 매일 활발하게 소통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한다. 수어 덕분이었다. 뛰어난 수어 실력 덕에 본업인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 팀장 외에 한 국수어교원 자격증 대비 강의 등 수어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오 팀장에게 수어는 단순히 소통 수단만이

아니다. 수어 강사로 생기는 부수입의 80%는 기부하며 나눔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 매 달 4~5곳에 정기 기부를 하고 있지만, 유독 사랑의열매와는 좀처럼 인연이 닿지 않았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소개 글을 봤어요. 마침 강사비로 받은 돈이 일부 남아 있어서 고민하던 때였거든요. 문득 ‘나눔리더에 가입한 농인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청각장애인(농인)으로서 참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 다른 지역에는 청각장애인 나눔리더가 있지만, 대구에는 없었다. 대구 사랑의열매의 자세한 안내를 받고 오 팀장은 나눔리더 가입을 결심했다. 대구 1호 농인 나눔리더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으면

매달 여러 곳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지만, 오영석 팀장에게도 나눔리더 가입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고심 끝에 기부를 결정한 이유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분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편견 없는 시선을 가질 때 장애인도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죠.”



수어 강사로 활동하며 얻은 수입을 기부해 대구 사랑의열매 나눔리더가 된 오영석 팀장

그래서 오 팀장은 장애인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 방법으로 나눔을 선택한 것. 또한 자신의 나눔을 계기로 다른 청각장애인도 기부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곧 현실이 되었다. 오영석 팀장의 나눔리더 가입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의 다른 농인들이 기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후문. 그중 몇 명은 실제로 나눔 실천으로까지 이어졌다.

“저 개인적으로는 100호, 1호라는 숫자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100호를 달성하기 까지 99명이라는 많은 분이 나눔을 실천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나눔리더의 일원으로 기부에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영석 팀장의 바람처럼 나눔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 누구나 평범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그리고 오영석 팀장의 나눔이 도화선이 되길 바라본다. 🍀

누적 성금 6억 원 돌파...  
21번째 황기순·박상민의  
'사랑더하기' 거리 모금

## “신나고 흥겨운 나눔 무대로 초대합니다”

남대문시장에 신나는 무대가 펼쳐졌다.  
황기순·박상민의 21번째 현장 모금 캠페인  
'사랑더하기'다. 글 강은진 사진 김기남



### 사랑더하기, 거리 모금 브랜드로 우뚝

지난 8월 17일, 서울 남대문시장 삼익패션타운 앞 작은 광장에서 개그맨 황기순과 가수 박상민이 함께 하는 '사랑더하기' 버스킹 공연이 열렸다. 올해로 21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월미도 공연장에서 3일간 진행했다. '사랑더하기'는 지난 2000년 개그맨 황기순 씨가 휠체어를 타고 전국을 돌며 모은 성금으로 휠체어 52대를 장애인 단체에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가수 박상민 등 많은 연예인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으며, 자전거 국토 대장정과 길거리 미니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현장 모금을 진행해왔다. 사랑의열매의 상징적 현장 모금 이벤트로 자리 잡은 '사랑더하기'의 현재 누적 성금액은 6억 4,500여만 원에 달한다. 남대문시장에서 시작한 '사랑더하기' 버스킹 공연 첫날, 입추가 지났지만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아주 무더운 날씨였다. 황기순과 박상민은 연신 흐르는 땀을 닦으며 무대를 지켰으며, 가수 진성·정수라·조항조, 방송인 조영구 등 많은 선후배가 행사에 동참해 힘을 북돋워주었다. 황기순은 "이맘때가 되면 연제 모금 공연을 하느냐며 여기저기서 먼저 연락이 온다"며,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생활 속 기부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랑더하기 나눔 콘서트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한 사랑더하기 남대문 버스킹 공연 현장

### 생활 속 기부 문화에 큰 기여

가수 박상민의 무대는 오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기 충분했다. 뜨거운 햇볕에 한산하던 광장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고, 무대 앞 모금함은 십시일반 마음을 나누는 손길들로 분주해졌다. 박상민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금함에 한 번 돈을 넣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많은 분이 그 소중한 느낌을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자신이 거리에서 노래하는 이유를 말했다. 거리 공연을 통한 '사랑더하기' 현장 모금은 지역 행사와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생활 속 기부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1일, 행사 종료 이튿날 모금함 개봉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은 성금은 총 3,760여만 원이다.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해주신 박상민, 황기순 님을 비롯해 함께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생활 속에서 쉽고 재밌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공연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은 전액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에너지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

호우 피해  
특별 모금 및  
봉사 활동 전개

# “이재민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손길들”

지난 7월 우리나라 곳곳에는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예상치 못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피해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는 가운데, 이재민에게 작은 위로라도 건네고자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을 보내왔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1 호우 피해 입은  
고향에 기부금 전달한  
최정순 어르신  
2 인천 서구 가좌동  
할머니경로당 회원들

## 생계급여야껴 모아 성금 마련한 최정순 어르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최정순 어르신이 서울 강서구 방화3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호우 피해 성금 7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한 성금은 수년간 생계급여를 아껴 마련한 것으로, 고향인 경북 지역에 피해가 크다는 소식을 듣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난 혼자 살아서 많은 돈이 필요 없고, 정부에서 쌀도 주고, 복지관에서 밥도 먹게 해준다”라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호우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말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해당 성금은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호우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 ‘이재민보며마음아파’ 성금 모은 할머니경로당 회원들

지난 7월 27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할머니경로당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을 인천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귀한 나눔을 실천한 26명의 회원 이름을 빠짐없이 적은 봉투에 담아 전달했다. 이옥순 경로당 회장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재민을 보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금했다”면서 기부 배경을 밝혔다.

## 숨은 선행을 실천한 경남 익명의 나눔 천사

지난 7월 25일, 익명 기부자가 경남 사랑의열매 앞에 설치된 모금함에 손 편지와 성금 500만 원을 두고 떠났다. 기부자는 크고 작은 사회 이슈가



3 폭우 피해 농가 돕기에 나선 세종 사랑의열매 직원과 아너 회원들  
4 경남 사랑의열매에 익명의 기부자가 남긴 손 편지와 기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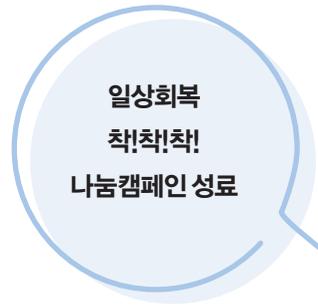
있을 때마다 손 편지와 함께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이번에도 동일한 필체의 손 편지에는 “오송 지하차도 사상자와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해병대 채수근님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라며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수재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7월 어느 날”이라 적혀 있었다. 이번 호우 피해 성금까지 더한 그의

누적 기부금은 총 5억 5,200여만 원에 달한다. 2017년 나눔캠페인 성금을 시작으로 진주시 아파트 화재 사고, 코로나19 피해, 이태원 참사 등 지속적으로 숨은 선행을 실천 중이다.

## 세종 사랑의열매, 아너 회원과 함께 수해농가일손도와

세종 사랑의열매 직원과 세종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폭우 피해 농가 돕기에 나섰다. 지난 7월 31일, 직원과 아너 회원들이 세종시 장군면 용현리 고추 농가를 방문해 피해를 입은 농민을 위로했다. 또한 수해로 망가진 고추밭의 비닐을 걷어내고 고추 지지대를 분리해 고추가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쳐주는 등 갑작스러운 호우 피해로 걱정이 큰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고추밭 주인 황인성 씨는 “정성으로 가꾼 고추밭이 엉망이 돼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막막했다”며 “사랑의열매에서 일손을 보태줘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 “모아주신 마음으로 모두에게 안전한 일상을”

지난 6월 15일에 시작한 '일상회복 착착! 착! 나눔캠페인'이 7월 31일을 마지막으로 4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총 637억여 원의 기부금은 취약 계층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지난 8월 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해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캠페인 성료를 알렸다.

이번 캠페인에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이 직접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모금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북 1호 기부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 14명이 성금을 기부했다. 이 외에도 이범석 청주시장 등 4명이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으며, 부산에서는 김진홍 동구청장과 장준용 동래구청장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소방본부에서도 나눔을 전해왔다. 착한일터로 3년간 2억 7,000여만 원을 기부해온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경남 지역 1호 캠페인 기부자로 참여해 특별함을 더했다. 또한 TV CHOSUN은 <미스터트롯 2> 결승전 생방송 문자

투표 수익금 1억 8,420만여 원을 기부하며 시청자에게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보답했다. 경기대학교에서는 이윤규 총장을 포함해 대학 교무위원 6명이 나눔리더에 가입했으며, 교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도 100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따뜻한 성원이 이어졌다. 이번 캠페인 기부금은 •안전(하절기 냉방비 지원, 안전한 주거 환경과 영양·식생활 등 지원), •회복(신빈곤층의 생활비·주거비·의료비 지원 등), •돌봄(사회적 고립·단절 가구 발굴 및 심리 안정 지원 등) 세 분야에 지원해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탬 계획이다. ♡

##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이주 배경 아동들이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펀딩을 실시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 이주 배경 아동들의 태권도 교육 지원 “좋아하는 태권도를 계속 배울 수 있을까요?”

안산 아주나무센터에서는 이주 배경 아동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바로 태권도입니다. 하지만 태권도 수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안전한 매트도 없이 딱딱한 맨바닥에서 수업이 이루어져 위험천만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강사님의 도움으로 적은 강습비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지속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권도를 할 때 정말 행복하다는 아이들이 수업을 계속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하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b>모금 기간</b> 6월 28일~10월 22일	<b>목표금액</b> 390만 원	<b>모금 사용</b> 태권도 강사비(월 8회, 6개월), 매트·훈련 미트·도복 구매
--------------------------------	-----------------------	---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 캠페인 → 크라우드펀딩



Q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종합 건설 기업 (주)포스코이앤씨

## 같이 짓는 가치로 푸른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여의도 파크원, 해운대 엘시티, 송도 포스코타워 등을 시공한 국내 최고 건설기업으로 손꼽힌다. 초고층 시공 분야의 절대 강자인 포스코이앤씨가 '같이 짓는 가치'를 내세우며 이웃과 함께 하는 친환경 행보를 시작했다. 글강보라 사진 (주)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테라스 정원에서 진행된 어린이 꿀벌 축제 '해피 벌스 데이' 모습. 도시 양봉 사업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1,2 인천, 부안 등 포스코이앤씨 현장 인근에서 염생식물 모종을 이식 및 파종하는 임직원의 모습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3월부터 적용한 사명이다. 종전 포스코건설에서 포스코이앤씨(Eco & Challenge의 약자)로 변경한 것이다. 기존 건설업을 뛰어넘어 인류와 생태계를 위한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며, 미래 사회 건설을 위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기반으로 기업과 사회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 공헌 비전 역시 'Happy Builders; 지속 가능한 행복을 짓다'로, 지역사회와 새로운 나눔 가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활동의 핵심은 건설업 역량을 활용한 체계적 사회 공헌으로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협력사, 고객,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업해 포스코이앤씨만의 방식으로 지역사회 이슈 해결을 모색한다.

###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에코&챌린지 활동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포스코이앤씨의 에코&챌린지 활동은 '지속 가능한 자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사랑의열매와 함께 블루카본 보호와 도시 양봉으로 친환경 저탄소 활동에 나선다. 블루카본은 연안에 서식하는 염생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염생식물은 바닷가의 모래와 땅이나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군락지를 이루면 보다 효과적인 탄소 흡수가 가능해진다. 특히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 속도는 육상 생태계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져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 영종도 폐염전 부지(약 1만 6,000㎡ 규모)에 칠면초·함초·나문재 등 토종 염생식물 종자를 파종하고, 해홍나물 등 1,900본의 모종을 이식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부안 줄포만 자연갯벌 지역(약 14,000㎡)에 염생식물 종자와 모종을 심었다. 또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행사에 블루카본 체험부스를 마련해 갯벌 동식물 관련 교육 자료를 비치하고, 버려진 그물 등 해양 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나섰다.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도시 양봉 사업(BEES NEEDS)도 빼놓을 수 없다. 꿀벌은 세계 100대 농작물의 7%를 수분하는 매개로, 인류의 식량 및 생존에 유익한 곤충이나 기후변화, 먹이 부족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만 수십억 마리 이상이 사라지는 등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벌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인천 송도 달빛공원과

국립과천과학관에 도시 양봉장, 아파트 야생 벌집, 꿀벌 정원 등을 조성해 천연 벌꿀과 친환경 비누를 생산하고 꿀벌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세계 벌의 날(매년 5월 20일)을 맞이해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어린이 꿀벌 축제 '해피 벌스 데이(Happy 벌's Day)'를 개최해 미래 세대의 생태 감수성을 제고하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꿈꾼다. 이밖에도 인천 지역 도시 양봉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미래세대 꿀벌체험 교육 등 벌과 도시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웃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공간 혁신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업 비즈니스 역량과 임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건설 분야 특화 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대표적 사업인 '도시혁신스쿨(Urban Innovation School)'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NGO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교류를 통해 폭넓은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미래인재로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2020년 서울여대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프로그램을 론칭한 이래 경남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한양대 등 8개 대학 200여 명의 학생들과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다. 도시혁신스쿨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도시 혁신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참신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며, 우수 아이디어는 포스코이앤씨와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실제로 추진한다. 그동안 마을을 상징하는 마스코트 제작과 벽화 그리기부터 언덕 통행로 안전시설 설치, 주민 소통 및 휴식 공간 조성 등 프로젝트를 진행해 새로운 도시 재생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에코드림(Eco-Dream)'은 2013년 소방청과 공동으로 화재 예방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한 이래 296세대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고 2,877세대에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운영 중이다. 열 손실로 인한 냉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노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효율 난방 시스템과 단열 창호를 설치하고, 냉방비를 줄이는 옥상 방수 페인트, 자외선 차단 차열 페인트, LED 전등 교체 등을 시공하고 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 활동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의 주거 편의성을 높여 나가며 응급 안전 서비스 ICT기기를 도입해 응급 상황 감지 등 디지털 돌봄 기능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내일의 꿈을 설계하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2010년부터 이어 온 장수 사업인 인천 지역아동센터 '원앤원(One&One)'은 사내 부서와 아동센터가 일대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이다. 임직원의 정기 봉사를 통해 학습 지도, 여가 활동, 멘토링 등 아동 돌봄이 이루어진다. 친환경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꿀벌, 반딧불이, 숲 체험 등 다양한 생태 환경 체험 교육은 물론 생태 미술 심리 교실을 제공해 정서적 돌봄도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아동양육시설인 그룹홈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적성캠프를 개최해 꿈찾기 기회를 제공하며, 동아리 활동, 가족 여행, 직업인 만남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다채로운 활동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마인드를 갖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 '에코드림'에 동참한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노후 주택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  
2 대학생들이 참여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 '도시혁신스쿨'로 정비된 마을 쉼터 모습



이 밖에도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위해 2016년부터 중학생 자유학기제 건설 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 봉사자들이 인천 지역과 전국의 현장 인근 중학교를 대상으로 일일 교사이자 멘토로 학교를 방문해 건축, 플랜트, 토목 등 건설 분야의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매년 3,000여 명의 학생이 이 진로 체험 교육에 참여하는데, 임직원이 직접 포스코이앤씨에서 건설한 대표 건축물과 해외 건축물을 소개하며 인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는 건설 산업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3D 건축물 모형도 직접 제작해보고 간접적인 건축 체험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업 관련 직업과 학과도 함께 소개하는데, 이런 시간으로 미래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상생의 가치가 빛나는 현장 근로자 케어 프로그램

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포스코이앤씨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맞춤형 케어 서비스(care service)'를 펼치고 있다. 행동하는의사회, 경희의료원, 인하대병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결핵협회 등 의료 단체와 함께 내과·치과·한외과·정형외과 등 진료와 처방약을 제공하고 결핵·초음파·골밀도 등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또한 출신국 음식 제공, 헤어커트 서비스 등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장 근로자 쉼터 '에코 앤 레스트(ECO & REST)'를 개발해 건설 현장에서 활용한다. 폭염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휴게 공간 부족 및 전력 공급 문제를 겪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친환경 근로자 쉼터를 개발한 것이다. 에코 앤 레스트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태양광 이동식 쉼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냉난방 등 에너지원은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에너지를 100% 활용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실내를 편안한 카페 분위기로 조성했다. 창호 확장으로 개방감도 확보해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설계와 디자인은 포스코이앤씨 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인 탄소중립협의회와 사내 학습 동아리 COP(Community of Practice)가 함께 수행해 의미를 더한다. 이처럼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다양한 접근과 도전은 포스코이앤씨의 지향점이 된다. 작은 공간에도 '같이 있는 가치'를 실천하기에 오늘보다 더 푸른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3 3D 건축물 모형으로 교각을 만들며 진로를 탐색한 중학생들  
4 '원앤원'의 활동으로 지역 아동과 임직원이 추석맞이 송편을 짓고 있다.  
5 외국인 근로자가 '맞춤형 케어 서비스'로 치과 진료를 받는 모습

#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 모아주신나눔, 사랑으로 전해요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 계층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기록적인 폭우까지 더해져 이웃의 시름은 날로 늘어만 간다. 그럼에도 여전히 희망은 우리 곁에 있다. '일상회복 책!책!책 나눔캠페인', 호우 피해 특별 모금 등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따뜻한 나눔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열매는 우리 이웃이 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아주신 나눔을 사랑으로 전하고 있다.



### 다른 부분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9월





## 광주지방보훈청과 연합모금 전개 “새로운 보훈 수요 환경에 공동 대응합니다”

7월 27일, 광주 사랑의열매와 광주지방보훈청이 보훈 가족 사랑 나눔 지원 사업 연합 모금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글 이선희 사진 광주 사랑의열매



보훈 가족 사랑 나눔 지원 사업 연합 모금 협약식에 함께한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왼쪽)과 광주 사랑의열매 박철홍 회장



광주지방보훈청은 이동보훈복지 특별 사업의 일환으로 완도군 금일도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해 맞손

지난 6월 5일 국가보훈부가 공식 출범했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변화가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 서비스 품질을 대폭 혁신해나가고 있다. 광주지방보훈청 역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세대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보훈 수요 환경에 맞춰 공동 대응하고자 광주 사랑의열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훈 가족 사랑 나눔 지원 사업 연합 모금 협약식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해나간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저소득 보훈 가족의 생계비, 순직 군경 미성년 자녀의 장학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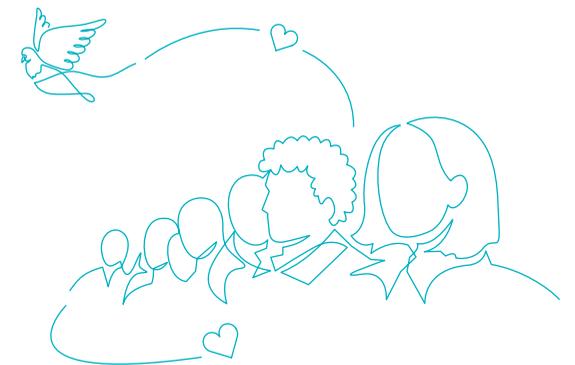
“오늘은 70년 전 한국전쟁 종전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지역 보훈 가족에 대한 사랑 나눔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광주지방보훈청 정홍식 청장

### 보훈 가족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광주 사랑의열매와 광주지방보훈청의 인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5월, 보훈 가족 사랑 나눔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에는 연간 7,000만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조성해 도움이 필요한 보훈 가족에게 전달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 사업을 5년간 진행한 두 기관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추면서 오늘날 연합 모금 협약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광주지방보훈청은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거주하는 보훈 가족 위문, 생활이 어려운 보훈 가족을 위한 연탄 나눔 및 배달 봉사 활동 등 취약 계층 보훈 가족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보훈 가족 사랑 나눔 후원 물품을 보내왔다.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전북영업센터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합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전북영업센터는 전북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기업이다.  
특히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나눔에 참여해 더욱 따뜻한 기부 문화를 형성했다.

글 이선희 사진전북 사랑의열매



지난 6월 희망2023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에서 전라북도의회장상을 수상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전북영업센터

“현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전북영업센터 권영진 센터장

### 지역사회에 보내는 따뜻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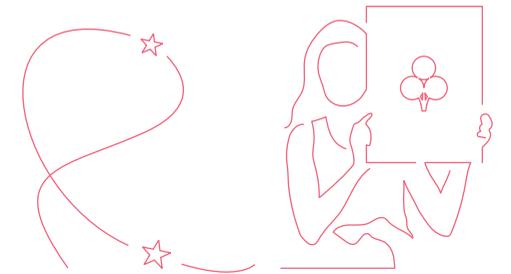
전북 사랑의열매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전북영업센터의 인연은 2022년 9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900만 원을 기부하며 착한일터에 가입한 게 시작이었다. 기탁한 성금은 전북 도내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해 이웃들이 추석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불과 3개월 뒤인 12월에는 전북 도내 소외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1,258만 2,000원을 모아 연탄 구입비로 전달했다. 성금은 전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주연탄은행 등에 지원해 연탄이 필요한 세대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착한 교육 기부’ 후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4개소 지역아동센터에 400만 원 상당의 도서 및 학용품을 제공했다.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기부금 전달식 모습



2022년 9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전북영업센터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900만 원을 기부하며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 임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 나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전북영업센터가 전달한 기부금은 전북 도내 34개 영업소 200여 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조성했다. 그뿐 아니라 행복나눔봉사단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진심을 다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2023년 6월에는 그동안의 나눔 활동을 인정받아 희망2023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에서 전라북도의회장상을 수상하며 또 한 번 뜻깊은 나눔의 발자취를 남겼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전북영업센터의 나눔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돕고자 진행한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에 500만 원을 기부한 것. 해당 성금은 에너지 취약 계층과 사회 재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 전남개발공사 나눔명문기업 이어 사장의 나눔리더 가입까지

## “전라남도 이웃들에게 마음이 전해지길”

전남개발공사의 나눔명문기업 가입과 장총모 사장의 나눔리더 가입이 동시에 진행됐다. 나눔의 곁경사다. 특히, 장총모 사장의 나눔리더 가입은 공공 기관 1호라 더욱 뜻깊다. 전라남도과 상생하며 도내 대표 ESG경영 기업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전남개발공사의 따뜻한 나눔이야기를 만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전남사랑의열매



전남 사랑의열매 9호 나눔명문기업이 된 전남개발공사

### 공공 기관 1호 나눔리더 탄생

7월 17일, 전남 사랑의열매에서 전남개발공사 장총모 사장의 나눔리더 가입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 전남 사랑의열매 김동국 사무처장, 전남개발공사 장총모 사장, 전남개발공사 김대준 본부장 등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무엇보다 장총모 사장의 이번 가입은 공공 기관 단체장 1호 나눔리더 탄생으로 보다 뜻깊었다. 전남개발공사 장총모 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했다”면서, 앞으로 220인의 릴레이가 도민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져 전라남도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5월부터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역 내 인사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개인 프로그램으로, 11월까지 참여 가능하다.



공공 기관장 1호 나눔리더가 된 전남개발공사 장총모 사장(오른쪽)과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의 가입식 기념사진

### 나눔명문가입도 이어져

전남개발공사 장총모 사장의 나눔리더 가입과 함께 전남개발공사의 나눔명문기업 가입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날 전남 사랑의열매 9호 나눔명문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전라남도 내 사회적 창출과 공익에 기여하는 대표 ESG 경영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전남개발공사는 2020년부터 해마다 순이익의 10%를 도민 수혜 사업으로 기부해오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수익금 33억 원을 전남인재평생진흥원과 전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등 다양한 기관의 사업에 환원한 바 있다.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은 “상생하는 전라남도를 위해 힘써주시는 전남개발공사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전남 사랑의열매는 전남 도내 가치 있는 나눔을 함께할 사회 공헌 파트너로서 이웃들의 희망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이 도민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져 전라남도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 전남개발공사 장총모 사장





## ‘축구특별시’ 명문 구단의 특별한 나눔 대전하나시티즌의 지역과 하나 되는 사회 공헌

지난해 대전하나시티즌은 사회 공헌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나눔 실천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그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활발하게 소통한 구단에  
수여하는 사랑나눔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대전하나시티즌의 남다른 나눔 활동이 눈길을 끈다.

글 이선희 사진 대전사랑의열매



대전하나시티즌 선수들이 방문해 학생들에게 직접 축구를 코칭하는 하나드림스쿨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국가유공자를 축구 경기장에 초청하는 영웅의 날 행사

축구용품 전달했다. 또한 프로 축구 선수들이 관내 초·중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직접 축구 코칭을 하는 K리그 축구 선수와의 만남도 진행 중이다. 2021년에는 대전 사랑의열매와 함께 ‘아이들에게 행복한 대전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전하나시티즌은 프로모션 티켓 수익금과 지역화폐 플랫폼인 온통대전 앱을 통해 모인 기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기탁한 기금은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교육용품, 운동용품, 쉼터 환경 개선 등에 사용했다. 또 선수들이 지역 내 여성 축구 동호회 회원들에게 직접 축구 강습을 해주는 ‘왓 위민 윈트(W.W.W)’ 프로그램을 실시해 여성 축구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 지역사회 공헌은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

2000년대 초 대전하나시티즌(당시 대전시티즌)의 활약으로 대전은 ‘축구특별시’라는 별칭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과거의 영광만 남았다. 2020년 하나금융그룹에 인수되어 시민 구단에서 기업 구단으로 재창단됐다. 이를 계기로 최근엔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며 “축구특별시의 귀환”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축구만큼이나 대전하나시티즌이 주목받는 게 또 있다. 바로 사회 공헌 활동이다. ESG 경영을 추구하는 하나금융그룹 방침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Future(미래), Local(지역), Green(환경)을 키워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축구 문화 확산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아동과 축구 문화 확산을 위한 ‘Future’

대전하나시티즌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하나드림스쿨’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의 교육 취약 초등생에게 선수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친필 편지를 비롯한 축구공, 축구화, 유니폼, 가방 등

### 지역 밀착형 공헌 활동 ‘Local’

지역 곳곳을 보살피며 활발한 봉사 활동도 전개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전국 단위 기숙형 위탁 교육기관인 해맑음센터 내외곽 환경 개선 및 체육 활동을 실시했다. 또 대전 사랑의열매를 통해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해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같은 해 9월에는 사무국 임직원과 선수단이 식품 키트 선물 및 포장 봉사 활동을 하며 지역 어르신이 명절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매년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유공자 100여 명을 초청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영웅의 날’ 행사도 진행 중이다.

### 환경보호 가치를 공유하는 ‘Green’

대전하나시티즌은 의류 및 잡화를 수거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하나클로스 의류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기장을 방문한 관중을 대상으로 의류를 기증받아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의류 1,269점, 잡화 68점을 기증했다. 이는 옷을 생산하거나 버릴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3,805kg, 물 455만 8,600L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한다. 🍀



## 수재민 위해 공연 수익금 전액 기부한 강민호무용단·칼라미앙상블 “예술로 희망을 전해요!”

충북 도내 수재민을 돕기 위해 지역 예술인들이 나섰다.  
강민호무용단과 칼라미앙상블이 그 주인공이다. 글 강은진 사진충북사랑의열매



지역 수재민을 돕기 위해 자선 콘서트를 진행한 강민호무용단·칼라미앙상블 성금 전달식 기념사진

### 수재민 위한 나눔 콘서트

8월 10일, 충북 사랑의열매에서 강민호무용단·칼라미앙상블의 호우 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과 무용가 강민호 대표의 나눔리더 가입식이 있었다. 이번 여름, 충청북도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강민호무용단과 칼라미앙상블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8월 2일 청주 블루체어아트홀에서 '수재민 돕기 위한 위로와 희망 나눔 콘서트'를 열었다. 강민호무용단 강민호 대표의 총연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활약하는 무용가 양미희, 성악가 한상우·이서희, 판소리 함수현, 피아노 최규, 시낭송 박성연, 가야금 전옥주앙상블, 실용보컬 권희주 동원대 교수, 샌드아트코리아 이정순 대표 등이 동참하며 전통춤·창작춤·성악·피아노·가요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은 300여 명의 관객이 찾아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티켓 수익과 기부금 등 300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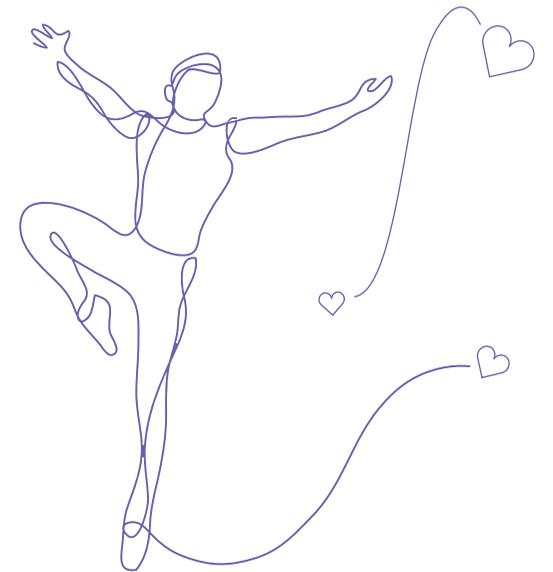
### 나눔리더 가입한 강민호 대표

충북 도내 수재민을 위한 호우 피해 복구 성금 전달과 함께 공연을 기획한 강민호 대표의 나눔리더 가입도 이어져 더욱 뜻깊었다. 충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300만 원의 성금뿐 아니라, 좋은 취지로 펼쳐는 나눔 콘서트에 기꺼이 동참해준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고마움까지 담아 추가로 100만 원을 기부한 것이다. 강민호 대표는 “이번 공연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다시금 느꼈고, 예술인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춤으로도, 기부로도 나눔의 기쁨을 전하는 강민호 무용가는 5년 전 제천의 청암학교에 예술 강사로 출강한 것을 시작으로 충주의 송덕학교, 청주의 이은학교 등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번 공연 기획 소식을 들은 청암학교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5만 원을 보내왔으며 제자들과의 끈끈한 정을 자랑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강민호 대표는 “충북 도내 수재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



나눔리더에도 가입한 무용가 강민호 대표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과 함께 자선 콘서트를 통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강민호무용단 강민호 대표





## 13년째 진행 중인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상당수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충남 사랑의열매는 이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글 이선희 사진 충남 사랑의열매



올해 6월 준공한 故 신○○ 옹의 새로운 보금자리



전북 진안군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의 공사하기 전 집 전경

###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故 신○○ 옹은 1950년에 입대해 한국전쟁 및 소백산지구 전투 등에 참전했다. 故 신○○ 옹의 기존 집은 낡아서 환기와 단열이 안 돼 추위와 더위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게다가 몸은 불편해 직접 수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빠듯한 가정 형편으로는 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충남 사랑의열매와 육군은 올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하면 평탄화, 내외부 단열 시공, 타일 공사, 전기 공사 등을 진행했다. 안타깝게도 故 신○○ 옹은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난 6월 20일 준공식에서 故 신○○ 옹의 부인은 대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참전 국가유공자에게 받은 은혜를 돌려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에 충남 사랑의열매는 육군, 후원 기업과 함께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사업을 확대해 참전 유공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짓는 보금자리  
충남 사랑의열매는 육군과 함께 2011년부터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전쟁 및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의 집을 신축·개보수할 수 있도록 공사 비용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 지원비 등을 전달해 깨끗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국가유공자에게 위대한 헌신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국민에게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기억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이 사업의 재원은 기업의 기부 참여로 조성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신축·개보수 390가구, 임대주택 660가구, 약 130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멕시코 참전용사 2명의 집수리를 진행해 전쟁이 남긴 상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

###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 기업들

CJ그룹, KT&G, LG화학, 계룡건설, 국민은행, 기아자동차, 농협은행, 롯데장학재단, 보잉코리아, 삼성전자, 신세계그룹(이마트), 신한은행, (주)화성장학문화재단, 포스코,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그룹, 한화탈레스, 현대자동차그룹, 효성그룹



전북 진안군 대상자의 집은 현재 공사를 마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3180호(강원 106호)



**김동인 하나로시스템(주) 대표**  
“저의 가입이 나눔 실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울림으로 다가가 더 많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전국 3196호(서울 392호)



**김현태 현경사회복지회 회장**  
“나눔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 가족 모두의 소망입니다.”

전국 3197호(서울 393호)



**탁병희**

전국 3204호(경북 158호)



**허봉욱 경주OK목장 대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꿈을 갖고 살아가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고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3205호(인천 172호)



**이현숙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미현대리점 대표**  
“나눔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전국 3207호(중앙 375호)



**장민호 호엔터테인먼트 가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국 3208호(부산 334호)



**박세웅 롯데자이언츠 야구 선수 투수**  
“국민들의 큰 응원과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로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3211호(대구 223호)



**故 이원일**  
“착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히 잠들기를 소망합니다.”

전국 3212호(서울 395호)



**배선혜 애서스트화현 미국법자문사 변호사**

전국 3215호(경기 318호)



**김현규 천종동물약품 대표**  
“나눔은 천연의 기쁨이며,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전국 3217호(경남 153호)



**구자도 신항기계(주) 대표이사**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나눔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아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국 3218호(경남 154호)



**전종인 우수AMS(주) 회장**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 복을 나누면 행복이 배가됩니다.”

전국 3219호(부산 328호)



**양은교**  
“서로가 더욱 가까워지는 세상을 응원합니다.”

전국 3220호(부산 329호)



**양우석 은산해운항공(주) 실장**  
“따뜻한 세상을 기원합니다.”

전국 3221호(부산 330호)



**김미향 (주)에이치디알 대표**  
“작은 나눔으로 큰 꿈을 지킵시다.”

전국 3222호(부산 331호)



**황치연 (주)디알종합건설 이사**  
“나누면 행복이 두배”

전국 3223호(부산 332호)



**황새벌 (주)씨에스건설 대표이사**  
“함께 나눠요.”

전국 3224호(부산 333호)



**장지호 법무법인 든든 대표변호사**  
“든든한 후원자”

전국 3225호(대구 221호)



**故 서상돈**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33인이 국채보상운동의 나눔 정신을 계승합니다.”

전국 3227호(대구 224호)



**김종식 상도F&L 대표**  
“모두가 행복 합시다.”

경기 한성우 목향원 대표, 박영배 (주)글로벌스 회장 전북 박순덕

중앙회

HK이노엔(주), 걸음 기부 캠페인 목표 달성하며 나눔명문기업 가입



HK이노엔(주)(대표이사 박달원)가 걸음 기부 캠페인 '걸음엔 이노엔 시즌 4' 목표를 달성하고 마련한 5,0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며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걸음엔 이노엔' 캠페인은 HK이노엔이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 사회 공헌 활동으로,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지원하고 건강한 걷기 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시작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이 총목표 걸음을 달성하면 성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올해 캠페인은 지난 6월 19일부터 한 달간 진행했으며, HK이노엔(주) 임직원들과 일반인의 참여로 목표 걸음 5억 보를 달성해 5,000만 원 기부에 성공했다. 이번 기부로 HK이노엔(주)는 나눔명문기업 378호로 이름을 올렸다. 성금은 비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박달원 대표이사는 "걸음엔 이노엔 캠페인으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며 "나눔명문기업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름을 올렸다. 성금은 비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박달원 대표이사는 "걸음엔 이노엔 캠페인으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며 "나눔명문기업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원의료재단, 취약 계층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랑의열매 일상회복 책책책! 나눔캠페인에 법인 1호 기부자로 참여한 신원의료재단(이사장 이준형)이 노인의료나눔재단(이사장 김성환)과 함께 취약 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다. 현재 정부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릎 한쪽 기준 수술비 최대 12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추가 비용여 부담금 등의 비용이 없어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신원의료재단은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술비 지원에 나섰다. 이번 나눔캠페인에 기부한 성금 1억 원으로 수술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신원의료재단 홍순범 행정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을 주는 의료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애경산업(주), 56억 원 상당 생활용품 나눔



애경산업(주)(대표이사 임재영)가 서울시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6억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애경산업(주)는 12년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생활용품을 기탁하고 있다. 임재영 대표이사는 "사명이자 기업 이념인 애경(愛敬)의 의미대로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ROTC중앙회, 수해 복구 성금 기탁



대한민국ROTC중앙회(회장 한진우)가 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1,853만 5,426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벌여 마련했다. 한진우 회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ROTC 동문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며 "피해 지역과 주민에게 다스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

(주)화승네트웍스,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지원



(주)화승네트웍스(대표이사 박동호)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전국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해 피해 지역 시설 복구와 이재민 생계비 및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박동호 대표이사는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호 학생, 10년간 모은 용돈과 저금통 기탁



부산 사랑의열매 전 회장인 세운철강 신정택 회장의 손자 신지호 학생이 부산 나눔리더 261호로 가입했다. 신지호 학생은 10년 넘게 모아온 용돈으로 마련한 성금 1,000만 원과 함께 할아버지 신정택 회장에게 2011년 선물받은 뒤 꾸준히 저금해온 돼지 저금통을 전달했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베풀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대구

국채보상운동 선구자 서상돈 선생, 특별아너 회원으로 추대



대구 사랑의열매가 광복절을 맞아 국채보상운동의 선구자 서상돈 선생을 대구 221호 아너 회원으로 추대했다. 지역 명사를 아너 회원으로 추대한 것은 아너 소사이어티 설립 이래 최하다. 대구 아너 회원들이 자발적 모금 운동을 벌여 성금을 마련했으며, 회원 번호 221호는 국채보상운동 기념 일인 2월 21일과 같이 의미가 더욱 크다.

에스엘(주), 수해 복구 성금 1억 원 기탁



에스엘(주)(회장 이충곤)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성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수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에스엘(주)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0억 원의 초고액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 대표 나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충곤 회장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사업 실시



광주 사랑의열매가 2023년 기획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했다. 지원금은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과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폭염으로 고생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451곳에 4억 원, 취약 계층 3,000세대에 2억 원을 각각 전달했다. 광주 사랑의열매 김진곤 사무처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 수해 복구 지원 성금 1,000만 원 기탁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가 수해 지역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구호품 지원 및 피난처 설치 등 긴급 구호 활동에 사용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과 보호 대상 아동 자립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나눔을 펼치며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인천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 어르신 위한 삼계탕 지원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회장 김의식) 회원들과 인천 사랑의열매 임직원들은 지난 8월 8일 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 삼계탕 400인분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인천 아너 클럽은 2018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자원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엔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대표적 보양식인 삼계탕을 전달했다.

2023년 복권기금, 복지 기관 122개소에 배분



인천 사랑의열매가 2023년 복권기금 6억 4,279만 5,720원을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및 노후 기기 개선 사업에 지원했다. 성금은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122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전달했으며, 문화 활동 및 방학 기간 특별 프로그램과 신학기 물품 지원, 노후 기기 클리닝 및 공공요금 납부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전

에이플러스비전냉난방 박정문 대표, 아너 가입으로 나눔 실천



에이플러스비전냉난방 박정문 대표가 대전 110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평소 나눔의 기회를 찾던 박정문 대표는 대전 아너 클럽 부회장인(주)예람 강사돈 대표의 권유로 가입을 결심했다. 박 대표는 “주변 이웃 덕분에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만큼 받은 것을 나누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롯데케미칼 종합기술원, 희망나눔 장학금 전달



롯데케미칼 종합기술원(원장 황민재)이 희망나눔 장학금 8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임직원 300여 명이 참여하는 착한ilter 캠페인으로 조성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했다. 황민재 원장은 “지역사회의 꿈나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중앙동 자생 단체 회원,  
착한단체 합동 가입식



중앙동 자생 단체 회원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기부를 실천하며 울산 착한단체에 가입했다. 중앙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육회, 청년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회, 그린리더협의회, 청소년선도지도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11개 단체가 동참했다. 성금은 지역사회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울산 사랑의열매 전영도 회장,  
장애인 거주 시설 환경 개선 지원금 기탁



지난 7월 31일 울산 사랑의열매 전영도 회장이 태연재활원(원장 장용석)을 방문해 주거 환경 개선 지원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재활원 내 노후한 불박이장을 교체하는 데 사용했다. 일진기계(주) 대표이사이자 울산 아너88회 회원인 전영도 회장은 "거주자의 생활 편의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목향원 한성우 대표,  
아너가입으로 이웃사랑 실천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음식점 목향원을 운영하는 한성우 대표가 경기북부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목향원은 평소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생필품 및 체험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나눔에 앞장서왔으며, 정부가 인증한 모범 납세자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성우 대표는 "앞으로 더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음식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주)글로벌 박영배 회장,  
나눔 동참하며 아너 가입



글로벌 창호 전문 기업 (주)글로벌 박영배 회장이 남양주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에 동참하며 경기북부 아너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박영배 회장은 "꾸준히 나눔 활동에 참여해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주)글로벌은 26년간의 업력과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달청 우수 제품 업체로 선정된 기업이다.

경기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재민 위한 주택 및 시설 복구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성금 3,118만 2,840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회 공헌 성금과 임직원의 모금으로 마련했으며, 긴급 구호 물품과 주택 및 시설 복구·재건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김세용 사장은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 연합 모금 실시,  
복지단체와 파트너 간담회 진행



경기 사랑의열매가 2023년 연합 모금을 실시하기에 앞서 참여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합 모금 파트너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실시해온 연합 모금은 매년 공모를 통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며, 올해는 5개 기관과 함께 12월까지 모금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관이 목표액 이상의 모금액을 달성하면 경기 사랑의열매가 추가 매칭금을 지원한다.

강원

하나로시스템(주) 김동인 대표,  
강원 106호 아너 가입



창호 시공 전문 업체 하나로시스템(주) 김동인 대표가 강원 106호이자 강릉 25호 아너로 가입했다. 김동인 대표는 "저의 가입이 나눔 실천을 고민하는 분께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아너 회원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로시스템(주)은 이견창호 브랜드 대리점을 운영하며, 뛰어난 창호 시공 능력으로 유명한 업체다.

강릉시 솔향먹거리타운,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 개최



강릉시 솔향 먹거리타운의 16개 가게가 강원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단체 가입해 지난 8월 2일 강릉시청에서 가입식을 진행했다. 성금은 강원 지역 내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솔향 먹거리타운 최원철 상인회장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웃에게 행복을 전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충북지역개발회, 호우 피해 복구 성금 기탁



충북지역개발회(회장 오선교)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오선교 회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충북지역개발회는 충북 도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 사업, 체육 및 문화 예술 진흥 사업, 농촌 4H 육성 지원 등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곡중학교, 수해 이재민 위한 나눔 동참



수곡중학교(교장 김정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성금 3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지난 7월 14일 진행된 마을 축제에서 수곡중학교가 운영한 아나바다장터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수곡중학교 학생자치회장 박시완군은 “성금을 내기 위해 수곡 축제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며 “지역 이웃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위해 배분금 1억 원 긴급 편성



전북 사랑의열매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배분금 1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전라북도에 전달했다. 배분금은 각 지자체의 호우 피해 가구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 사랑의열매 김동수 회장은 “이례적인 폭우로 생활 터전에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사회복지협의회·전주연탄은행, 2023 연합모금 협약 체결



전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나춘균)와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이 전북 사랑의열매와 2023년 연합 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연합 모금은 도내 사회복지 기관과 함께 모금을 실시해 지역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함께 모금을 펼칠 두 기관이 설정한 모금 목표액을 일정 비율 이상 달성하면 전북 사랑의열매가 추가 매칭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

한국서부발전(주), 수해 복구 연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실시



한국서부발전(주)(사장 박형덕)가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주시 이인면·금학동·우성면 가구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전달하고, 냉난방기 점검 및 수리, 노후 전선 정리 등을 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가수 김호중 팬클럽 아리스, 저소득 장애인 위한 선풍기 전달



가수 김호중 팬클럽 ‘아리스’ 회원들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선풍기 110대를 기탁했다. 선풍기는 김호중의 앨범 발매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구입했으며, 충남장애인복지관협회를 통해 충남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다. 회원들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범 팬덤이 되겠다”고 전했다.

전남

호주면세점 직영 할인점·북항점, 착한가게 동시 가입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호주면세점(대표 김주원) 직영 할인점과 북항점이 전남 착한가게에 동시 가입했다.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호주면세점 두 지점의 성금은 목포시 관내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전남 아너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주원 대표는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재)씨젠의료재단 광주호남검사센터, 2023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 동참



질병 검사 전문 기관 (재)씨젠의료재단 광주호남검사센터 박창수 대표원장과 임직원 4명이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창수 대표원장과 채명중 센터장, 박현숙 실장, 안세순 부실장, 윤정모 팀장이 나눔리더로 이름을 올렸으며, 성금은 전남 지역 취약 계층을 돕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경북

제주복집, 경북 4200호 착한가게 가입



예천군 예천읍에 위치한 제주복집(대표 안정숙)이 경북 4200호 착한가게로 가입해 경북 사랑의열매로부터 현판을 전달받았다. 안정숙 대표는 평소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천해오던 중 우리경북, 일상회복 책!책!책! 나눔캠페인 소식을 듣고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안 대표는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힘든 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장학금 및 보육비 1억 5,000만 원 지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가 경북 도내 취약 계층을 위한 장학금과 보육비 1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공사는 2015년부터 8년째 장학금과 보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3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전달하며, 올해는 안동·경산·의성·고령·봉화 등 9개 지역에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성금 기탁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회장 문준식)가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1,722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임직원, 읍·면·동 분회, 경로당 회원들이 십시일반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이도동 신성경로당의 95세 어르신이 10만 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문준식 회장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제주 사랑의열매 착한가게나눔봉사단, 자원순환 캠페인 활동 진행



제주 사랑의열매 착한가게나눔봉사단(단장 문순생)이 지난 8월 13일 이호테우 해변 일대와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 노형점에서 단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 순환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무색 PET병 자동 수거 보시기 체험 활동을 진행했으며, 지역 주민에게 자원 순환 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한택 이진국 대표, 경남 151호 아너 가입



한택 이진국 대표가 경남 151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진국 대표는 “내 삶의 수많은 기회 중 나눔이라는 기회를 접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며, 항상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00년 유압 연결구 전문 제조업체 한택을 창업한 후 현재까지 건실하게 기업을 이끌고 있다.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나눔리더 가입으로 나눔문화 확산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경남 343호 나눔리더로 이름을 올렸다.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우리 지역에 나눔문화가 확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했다”며 “경남 도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

세종상공회의소, 수해 지원 특별 성금 1,000만 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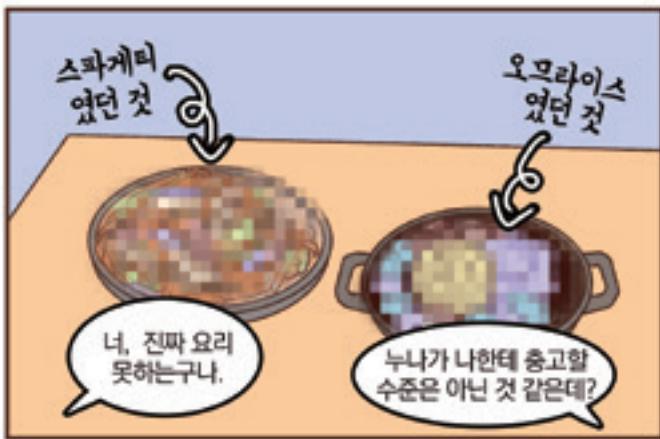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 성금 1,000만 원을 세종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두식 회장은 “전국적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특히 세종과 충청 지역의 수해가 심각했다”며 “수해 복구 현장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세종FG·헥토르TV, 호우 피해 딛고 기부 실천



유튜브 채널 ‘공구만드는 남자 헥토르TV’를 운영하는 인기 유튜버이자 공구 제조업체 (주)세종FG를 이끄는 이현우 총괄이사가 수재민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현우 총괄이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회사 공장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더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

# 이상한 이상해씨



##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중앙회	02-6262-3000	서울지회	02-3144-0101
부산지회	051-790-1400	대구지회	053-667-0530
인천지회	032-456-3333	광주지회	062-222-3566
대전지회	042-347-5171	울산지회	052-270-9000
경기지회	031-220-7900	경기북부	031-906-4028
강원지회	033-244-1662	충북지회	043-238-9100
충남지회	041-635-0340	전북지회	063-282-0606
전남지회	061-902-6800	경북지회	054-650-2600
경남지회	055-270-6700	제주지회	064-755-9810
세종지회	044-863-5400		



###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